

정교회주보

한국 정교회 대교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Tel (02) 362-6371 Fax (02) 365-2698 orthodoxkorea.org



마태오 제 17주일

성 포티오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제8조 | 조과 복음 11)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주님 입당 축일 제2응송 --- 164
- 제8조 부활 찬양송 ----- 82
- 주일 입당송 ----- 14
- 주님 입당 축일 찬양송 ---- 164
- 성당 찬양송
- 주님 입당 축일 시기송 ---- 164
- 사도경 : 고린토 후 6,16~7,1 ---봉독서 265
- 복음경: 마태오 15,21~28 --- 120
- 주님 입당 축일 성모송 ---- 166
- 주님 입당 축일 영성체성혈송 166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지난 주, 주보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2022년 사목 지침서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로마 12,10)

우리 각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다음과 같이 질문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부당한 상황들 (예를 들면 가난한 나라에 백신과 의약품이 부족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제가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 수백만 명이 기아로 죽어가거나 질병이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제3세계 나라들은 빈곤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제가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잘사는 나라들 정부의 정치적 의지에 달린 문제 아닌가요?"

선뜻 보기에는 이 추론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한 예로,

만약 우리의 가족 중 한 명이 어떤 이유로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를 그냥 운에 맡겨둘 수 있나요? 다른 가족들의 건강에 위험이 없도록, 백신을 맞지 않은 가족 구성원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돌보지 않을는지요? 만약 우리의 친척 중 누군가가 음식이 없어 배고파하면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인지요? 만약 우리가 아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한 친구가 집이 없다고 하면 그 친구를 우리 집에 머물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에 대해 잘 생각해보면, 우리 지구 공동체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날 우리는, 한 국가의 문제가 다른 국가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치는 전염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며, 한 이웃입니다. 만약 우리 이웃의 집 에 불이 났는데 신경 쓰지 않는다면 분명히 우리 집도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사람보다는 동물을 더 사랑합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보다 동물을 더 사랑하는 사회 가 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아 이들을 키우는 것보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을 선호합니다! 물론 동물과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에 게 애정과 보살핌을 주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신학자 그레고리오스 성인은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말 을 못하는 동물들에게까지도 연민을 느껴야 할 책임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의 이웃들에게는 얼 마나 많은 자선을 베풀어야 할까요?" 그리고 같 은 주제에 대해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인도 다 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는 강아지에게 먹 이를 주고, 누구는 당나귀와 소에게 먹이를 주는 데, 배고픔에 허덕이는 사람을 보면서도 무시합 니다. … 누구는 화려한 건물과 집과 땅을 사기 위해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 만약 당신이 주 님과 화해하기를 원한다면, 선한 일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깨닫고, 헐 벗은 사람들과 배고픈 사람들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억울한 사람들을 돌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자선을 베풀 수 있는 수많은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자선은 물질적으로 베푸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인은, 한국처럼 빈곤이나 기본적인 생필품 문제가 없는 나라들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질문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선이라 하면,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인께서설명하고 있듯이 자선에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물질적 자선 외에도, 영적 자선이 모든 곳에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지역에 가난한 사람이나 집 없는 노숙자가 없을수도 있지만, 사랑, 애정, 이해, 사람들 간의 친교와 같이 영적인 것들의 결핍으로 고통을 느끼는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의 시련으로 심리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병원에서 주변에 아무런 가족도 없이 외롭게 고통받고 있고, 어떤 이들은 격리생활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어떤이들은 가족을 잃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심리적 문제들에 대처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옆에 자애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애정 어린 마음으로 그들에게 휴식을 주고, 그들의고통을 덜어주고,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즉, 우리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마태오11,28)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곁으로 부르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대에도 영적으로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예로 그리스 도의 해방 메시지에 대해 아직까지 듣지 못했고, 주님의 자애로운 현존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 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자선의 의무는, 우리를 우리 신앙의 위대한 보물을 잘 모 르는 이들에게 정교회를 증언하는 전도자가 되라 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을 통해 나오는 결론은, 우리 이웃들의 물질적 영적 필요에 대한 무관심은 우 리를 그리스도의 몸에서 분리시키는 치명적인 죄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관심한 것 에 대해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인은 다음과 같 이 말합니다. "이웃을 돕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반 대, 즉 무관심한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연세계에 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 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성에는 이 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 반대 의견을 주장한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이 렇게 마련하신 하느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 를 들어, 태양이 빛을 낼 수 없다고 말한다면, 하 느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고 하면 또 다시 하느님을 모 욕하는 것이 되고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빛을 내고 주변을 따뜻 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보다, 태양이 뜨겁 지 않고 빛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빛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보다, 빛은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반대가 불가능합니다."

이웃에 대한 자선은 그리스도께 향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이웃에게 무엇을 제공하든, 우리는 그것을 받는 분이, 우리 구원을 위해육신을 취하신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깊은 확신을 가지고 제공해야 합니다. 신학자 그레고리오스 성인의 권고를 따르며 '그리스도를 방문합시다. 그리스도를 돌봅시다. 그리스도에게 음식을 드립시다. 그리스도에게 옷을 드립시다.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해 집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옵시다. 그리스도를 공경합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선을 통해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사랑을 바칩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을 통해 그분께 드리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에게 적선하는 것은 하느님께 빚을 주는 셈"(잠언 19,17)이라는 말씀처럼 그분께 빌려드리길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세와 영생에서 "백 배"(마태오19,29)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비롭고 자애로운 사람이 됩시다.

올해 우리 모두는 더 자비롭고 자애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부모들은 스스로의 모범을 통해 아이들에게 이웃에게 자선을 베푸는 방법을 가르칩시다. 다른 모든 것들처럼 자선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로써뿐만 아니라,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아픈 사람들에게는 도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지원 등 실천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이웃'이 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애로우신 주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 듯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자선활동 또는, 오늘날 소위 말하는, 이타적인 자원봉사는 빛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되길 원하시는 빛 말입니다. (마태오 5,14) 이타적인 자원봉사가 빛과 같은 이유는,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빛의 근원이시며 참 빛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쳐주고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자원봉사는 우리가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마태오 5,16)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멘

2022년 1월 23일

十 公里到空人 五切处 乱云 四年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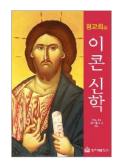
온라인 프로그램 안내

유튜브 (한국 정교회 채널)	
매 주일	성찬예배 중계
매주 월요일	성서공부 업로드
검색어	'orthodox korea' '한국 정교회'
줌(zoom) 단체 모임	
매 주일 오후 2시	신데즈모스, 예비 신자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장년회, 성인 신자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주일 학교



■신간 안내

정교회의 이콘 신학 (개정판) | 레오니드 우스펜스키 지음 | 박노양 그레고리오스 옮김 | 정교회 출판사 | 343쪽 | 18,000원



이 책은 정교회 성화를 다양하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교 이콘의 탄생 배경, 그리스도와 테오토코스(성모님)의 첫 이콘들, 이콘의 의미와 정교회 예배에서 차지하는 이콘의 위치 등이 소개됩니다. 2012년 초판에 이어 새 디자인의 표지로 출간된 개정판에는 새로운 이콘이 추가되어더욱더 알차게 꾸며졌습니다. 이 책을 통

해 정교회의 영적 보물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 세례를 축하합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지난 1월 30일(주일), 성인과 유아가 포함된 5명이 세례성 사로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로만 카프착 신부 집전) 축하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례자 명단: Marina Karapityan, Karina Karapityan, Anton Chen, Irina Chen, Eva Lee



하느님의 치유 방법

의사는 환자를 치료할 때 언제나 똑같은 처방을 쓰지 않는다. 하느님께서 영혼의 질병을 치료할 때도 어느 경우든 한가지 치 료법만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분은 각자에게 적합하고 다른 방 법으로 영혼의 아픔을 치유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분께 감사하자. 마침내는 치유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성 막시모스 증거자

표지 사진 설명



가파르나움

갈릴래아 호수 북쪽 지역을 따라 길게 펼쳐져 있다. 예수님의 동네(마태오 9,1), 예수님의 집이 있는 곳(마르코 2,1)이라 불릴 정도로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밀접한 곳이다. 당시 매우 번창했던 국경도시로서 상업 어업 무역이 발달해서 세관을 두고 세금을 징수한 도시였다. 이곳에서 첫 제자들인 시몬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으며(마르코 1,16~20), 세관에서 일하던 마태오도 제자가 되었다.(마태오 9,9) 어느 곳보다도 예수님의 많은 기적이 행해진 곳이기도 하였다. 열병으로 누워 있던 시몬 베드로의 장모 치유(마르코 1,29~31), 죽었던 야이로의 딸소생(마르코 5,35~43), 오그라든 손을 펴주시고(루가 6,6~11),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으며(마르코 2,1~12), 고관의 아들을 낫게 하시는(요한 4,46~53) 등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현재 남아있는 중요한 유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의 회당 자리, 주거지, 성 베드로 사도의 집터와 비잔틴 시대의 교회 유적 등이 있다. (사진은 회당 자리와 성 베드로 사도의 집터)